日, 일러스트 NFT 주인 등장 화제

〈朱印〉

전통적인 '朱印문화'의 새로운 시도

치토쿠 스님, 미대 졸업 특기 살려
직접 만든 캐릭터로 일러스트 제작
본존불 사진 활용…해외 확산 목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불교에는 각 사찰을 참배하고 이를 인증하는 붉은 도장과 글씨를 받아 가는 '주인(朱印)'이라는 전통이 있다. 최근 들어 주인문화가 새롭게 각광을 받으면서 NFT(대체불가토큰) 주인까지 등장했다. 1월 18일 일본 'PR 타임즈'는 NFT(대체불가토큰)로 공개된 주인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사찰을 참배해 예불 올리거나, 공양 올린 후 증표로 수여되던 주인은 중세부터 전해오는 일본불교 고유문화다. 일반적으로 사찰 이름과 본존불 명호가 쓰여진 붉은 도장을 종이나 공책에 받아 간 것에서 주인(朱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인을 수집하고 이를 테마로 사찰을 참배하는 '주인 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인 형태도 단순한 도장이나 붓글씨에서 수묵화나 판화, 디지털 일러스트 등 다양한 '예술 주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불교미술 장르가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호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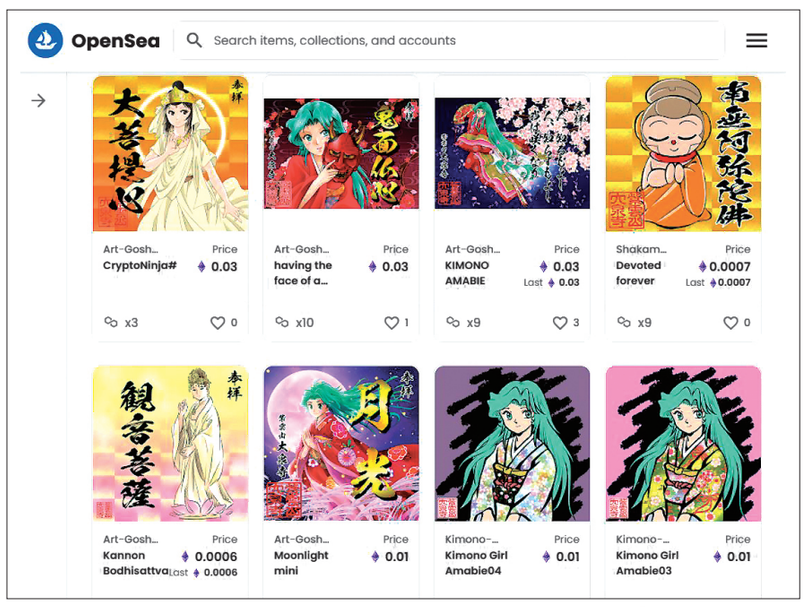
이러한 예술 주인 가운데 스님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가 NFT로 등장했다. 교토에 소재한 정토진종 사찰 다이센지(大泉寺)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NFT 주인을 공개하고 있다. 주지 마츠우라 치토쿠 스님은 "일본불교미술 가운데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주인 문화를 해외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NFT 주인의 시작"이라며 계기를 전했다. 치토쿠 스님은 미술로 유명한 교토 세이카 대학에서 일본화를 전공, 한때 만화 어시스턴트 활동을 한 경험으로 지금껏 일러스트를 활용한 포교활동을 해왔다.

일러스트 주인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다. 일러스트 주인에는 스님이 직접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짧은 경구나 계절, 명절에 맞는 문구들이 쓰여 있다. 스님은 "종이에 직접 그리거나 인쇄한 것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외에 주인문화를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렇다고 단순한 디지털 일러스트만으로는 사찰과의 직접적인 인연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떠오른 것이 NFT"라고 설명했다.

NFT는 복제가 손쉬운 디지털 세계에서 복제가 불가능한 원본을 이용해 만들어진 재화를 말한다. 혹여 위변조나 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자의 명확한 보장과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원본성에서 재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치토쿠 스님은 이를 이용해 일러스트 원본성과 스님이 그렸다는 의미를 담아냈다.

스님의 NFT 주인은 해외확산을 목표로, 세계에서 NFT 아트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플랫폼 오픈씨(Open Sea)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림의 완성도 등에 따라 가격은 최저 2달러에서 70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돼있다. 현재 일본 불교계에서는 다이센지를 이어 다양한 NFT 주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도장과 붓글씨를 이용한 것은 물론, 본존불의 사진을 이용한 것도 있다.

NFT 주인에 대한 반응은 현재 상반되고 있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맞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찰참배의 인증이라는 본래의 뜻이 퇴색, 단순한 불교 일러스트를 주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반박도 일고 있다.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씨에서 거래중인 다이센지의 일러스트 주인들. 사진출처=오픈씨 화면 캡쳐

日, "박물관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나라국립박물관, 관내예불 봉행
전시 성보도 '신앙 상징'임 알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을 제외하고 불상 같은 성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은 단연 박물관이다.

1월 21일, 일본 'NHK'와 '나라 TV'는 나라국립박물관의 불상전시관에서 박물관에 소장된 불상들을 예경하는 법요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옛 수도이자,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던 나라(奈良). 그 명성에 걸맞게 나라시에 소재한 나라국립박물관은 1895년에 완공된 구 본관을 현재 불상과 불교유물만을 전시하는 '나라 불상관'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자체도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문자 그대로 문화재 보고다.

불상관에 전시되고 있는 불상들은 박물관 자체 소장품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와 보존을 위해 원 소장처인 사찰들이 위탁한 것으로 개중에는 본존불로 모셔지던 불상도 다수 존재한다. 나라박물관 측은 박물관에 전시중인 불상들도 원래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평소와는 다른 박물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2006년부터 계절별로 연 4회 관내예불을 토다이지(東大寺) 측에 요청해 봉행하고 있다.

1월 21일 오전 10시에 봉행된 동계관내 예불은 토다이지 주지인 사가와 후몬 스님을 법주로 16명의 스님을 모시고 봉행됐다. 이번 예불의 본존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간고지(元興寺)에서 위탁한 약사여래입상. 200년 전까진 간고지 경내 목탑 본존불로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전하며, 8세기경에 조성된 등신대 목조불상이다.

예불은 불상관 중앙홀에 안치된 약사여래입상 앞에 마련된 임시불단에서 봉행됐다. 스님들 뒤로는 나라박물관 임원들이 배석했으며 산화(散華)의식 등으로 박물관에 안치된 불보살상에 공양을 올렸다. 이후 스님들은 향로를 앞장 세워 불상관 각 전시실을 돌면서 전시중인 성보들에 대해 독경과 예불의식을 봉행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나 이번 예불은 2년 만에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됐다. 예불에 참석한 대중들은 평소라면 화기가 엄금인 관내에서 순서대로 향공양을 올리고 손을 모아 기도했다. 나라시에서 방문한 40대의 여성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박물관이라 매우 감동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나라박물관 불상전시관에서 봉행된 예불. 사진출처=NHK방송화면 캡쳐

태국 AI 스님 '프라마하' 화제

포교의 목적 2021년 개발
SNS서 젊은 세대와 소통



태국 '인공지능 스님' 프라마하AI.

일본에 이어 태국에서도 '인공지능(AI) 스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설법으로 포교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과학 관련 매체 보이스봇 에이아이(Voicebot.ai)는 1월 21일 "2021년 가을 개발된 AI 스님이 최근 언론과 첫 인터뷰를 가진 이후 대중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태국 국영방송 PBS와 태국 최초로 개발된 AI스님인 프라마하AI(Phra Maha AI)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프라마하AI는 PBS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각지의 AI 인플루언서들이 개발자인 사이 무(Sai Mi)가 나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다"며 "나는 30살이며, 전통적인 불교 교리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상에서 젊은 세대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포교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프라마하AI는 2030 세대들에게 최근 성행하는 가상화폐에 인생을 빗대 "인생은 암호화폐처럼 기복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이 무 개발자와 그의 팀은 평면적인 입 모양을 만화 이미지에 접목시켰다. 눈을 깜빡일 수는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정지된 모습이다.

해당 매체는 "인공지능 첨단기술은 사실 프라마하 AI보다는 훨씬 더 발전해 있다"며 "상업적이면서도 교육적인 AI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일본에서 '안드로이드 관음'이라는 이름의 AI가 개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안드로이드 관음'은 높이 1m95cm 크기에 실리콘과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됐다. 일방적으로 설법하는 게 아닌 신도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스님, 10대에 마약 판매 혐의 체포

마을 주민들 고발로 경찰 조사
고위 승려 마약 밀반입 빈번에
"사찰 전수조사 해야" 목소리도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북동부 차이품(Chaiyaphum) 지역 한 마을에서 한 불교 승려가 10대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1월 19일 가톨릭아시아뉴스연합 등 외신에 따르면 프라 수톤(Phra Suthorn) 스님은 이른바 '히로뽕'으로 널리 알려진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마을 10대들에게 팔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프라 수톤 스님의 집을 압수수색해 침대 밑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36개의 봉투를 발견했다. 이후 프라 수톤 스님은 혐의를 자백했다.

태국에서 스님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남부 춤폰(Chumphon) 지역 한 사찰 주지 스님이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에도 '인근 사찰 스님들이 마약을 소지한 것 같다'는 마을주민의 제보로 조사 및 체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밖에 2020년 12월에는 고위 승려가 마약을 밀반입해 불법 판매했고, 다른 사원 스님 3명도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북부 치앙라이 출신 한 스님 차량에선 480만 개의 필로폰 알약이 발견됐다. 경찰은 "판매를 목적으로 상자에 포장돼 있었다"며 "14발의 총알이 들어있는 권총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은 마약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킬 때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의 의심을 피한다.

한 논평가는 "비단 일련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스님이 많다"며 "경찰이 각 사찰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석방 후 사찰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Taego Order of Buddhism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